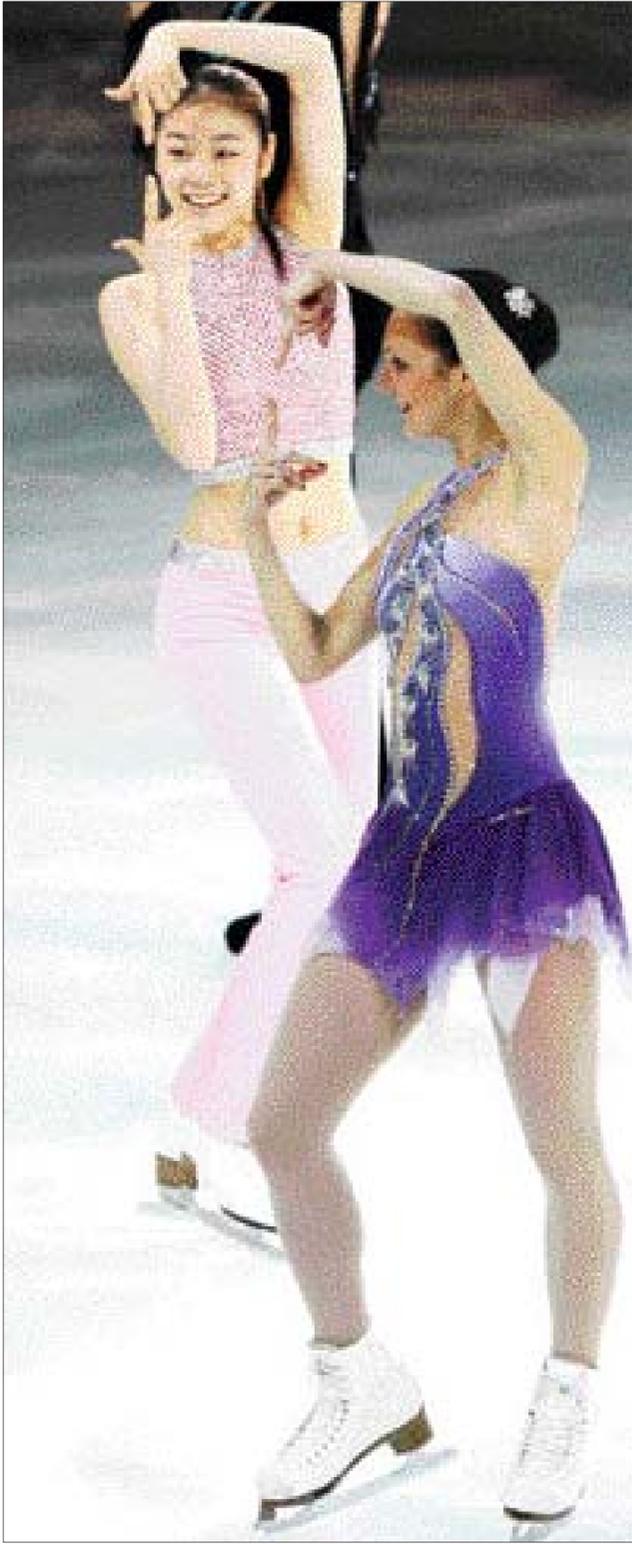


돌아온 '피겨 여왕' 김연아 'ET 춤'



18일 서울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KCC 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공연에서 은반위의 요정 김연아(왼쪽)가 ET 춤을 추고 있다. /연협뉴스

신지에 '빛 속의 여인'...시즌 3승

신인 유소연 돌풍 힘겹게 잠재우고 역전
7시간 雨中 집전...연장 3번째 홀서 승부

KLPGA 한국여자오픈골프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사진)가 태영배 제22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연장 접전 끝에 신인 유소연(18·하이마트)의 돌풍을 잠재우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신지에는 18일 경기도 용인 태영골프장(파72·5천844m)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한때 선두에 4타차까지 뒤졌지만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3언더파 213타로 동태를 만들어 연장전으로 끌고 간 뒤 세번째 홀에서 역전 우승했다. 신지에는 시즌 세번째 우승과 1억 3천만원에 보태 시즌 상금 2억원을 돌파해 다승왕과 상금왕(2억 5천900만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장장 7시간이 넘게 펼쳐진 신지에와 유소연의 대결은 연장 세번째 홀에서 우열

이 가려졌다. 유소연이 티샷을 페어웨이 왼쪽 bunker에 빠뜨려 네번만에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반면 신지에는 세번째 샷을 핀 앞 2.5m에 붙였다. 버디 퍼트가 홀 옆을 살짝 빗겨 나가 신지에가 한 숨을 내쉬었지만 유소연의 2m짜리 파퍼트도 홀을 외면, 결국 우승트로피는 신지에게로 넘어갔다.

윤승아(22)가 이븐파 216타로 3위, 국가대표 허윤경(18·대원외고)이 1오버파 217타로 5위에 올랐다. 전날 공동선두 서도미(27·보그너)는 5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3오버파 279타로 임지나(21), 안선주(21·하이마트)와 함께 공동 5위가 됐다.

신지에의 추격전은 후반부터 시작했다. 유소연이 10번홀(파4)에서 3퍼트로 보기를 한 뒤 신지에는 11번홀(파4) 그린 가장자리에서 친 버디 퍼트, 12번홀(파3)에서



4m짜리 버디 퍼트를 속속 홀에 떨어뜨려 순식간에 1타차로 따라 붙었다.

티샷이 흔들리던 유소연은 14번홀(파4)에서 10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넣어 승리를 굳히는 듯 했지만 신지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신지에는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았고 파퍼트를 남기고 주저하던 유소연은 보기로 돌아와, 동태가 되면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넘어가 결국 세번째 홀에서 피말리는 승부는 마무리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 2연승
태국에 3-2 신승

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전

한국 여자배구가 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전에서 북병 태국을 힘겹게 꺾고 2연승을 달성했다.

여자대표팀은 18일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 두번째 경기에서 태국을 세트 점수 끝에 3-2(25-20 28-26 14-25 21-25 18-16)로 물리쳤다.

한국은 대회 막판인 24~25일 약체로 꼽히는 카자흐스탄,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 2승을 보태면 올림픽 출전이 유력하다.

또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8강에서 쓴맛을 안긴 태국에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역대 상대전적에서 17승3패로 우위를 지켰다.

한국은 태국의 빠른 공격에 진땀을 흘렸지만 높이에서 앞섰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김민지(20점)와 배유나(18점)의 '최우쌍포'가 빛났고 무릎이 좋지 않은 한유미(현대건설) 대신 투입된 임효숙(14점·도공공사)도 노련미를 발휘했다.

한국은 5세트 8-7에서 임효숙의 재치있는 연타 공격과 배유나의 가로막기로 10-7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고 13-12에서 김민지가 터치아웃 공격으로 매치포인트를 만들었지만 태국의 공격과 김민지의 실수로 14-14 듀스를 허용했다.

이후 15-16에서 임효숙의 페인트 공격으로 동점을 엮은 뒤 김세영(9점·KT&G)의 가로막기에 이어 태국 윌리엄이 날린 스파이크가 라인을 벗어나면서 혈투를 끝냈다.

주장 김사나는 "정말 기쁘다. 초반에는 잘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일 동유럽의 강호 세르비아와 3차전을 치른다.

광주 동성고 16강행

청룡기 고교야구

제 63회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광주 동성고가 속직 서울 배명고를 2-1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동성고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배명고와의 경기에서 에이스 조우상과 임익현을 내란히 마운드에 올린 끝에 2-1로 승리했다.

동성고는 2회초 6번 최승원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린 뒤, 4회초에는 최승원의 3루타와 7번 고영우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

4강 후보로 꼽혔던 배명고는 6회 선두타자 임종혁의 3루타와 4번타자 강인균의 내야안타로 1점을 뽑았지만 동성고의 원투펀치에 밀리며 2-1로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동성고 선발 조우상은 6과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으로 배명고의 타선을 제압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창용 시즌 12S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마무리 투수 임창용(32·사진)이 닷새만에 세이브를 추가했다.

임창용은 18일 일본 효고현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 홈 경기에서 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3-2 승리를 지켰다. 이로써 임창용은 지난 13일 주니치전 이후 5일 만에 시즌 12세이브를 수확했고 평균 자책점은 0.56(종전 0.60)까지 낮아졌다.

지난 17일 시즌 8호 홈런을 쏘아올렸던 이병규(주니치)는 대포 행진은 멈췄지만 지난 16일부터 3경기 연속 안타를 뽑았고 시즌 타율 0.259를 유지했다. 경기는 주니치가 6-5로 승리했다.



박찬호 선발 쾌투

박찬호(35·LA 다저스)가 메이저리그에서 1년 만에 선발로 나와 승리에 디딤돌을 놨다.

박찬호는 1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4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2개로 2실점(1자책점)해 6-3 승리에 기여했다.

최고 시속 154km(96마일)의 강속구와 커브, 슬라이더 등 예리한 변화구로 삼진 3개를 잡았고 투구수 82개 가운데 스트라이크 52개를 기록했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2.17로 약간 올라갔다.

합평다이너스티CC '제4회 회원의 날' 성료

4계절 양산디 골프장 합평다이너스티CC가 18일 '제4회 회원의 날'을 개최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문명하(49)회원이 3언더파 69타로 메달리스트 상을 획득했고, 김의택(50)회원이 18번홀(파4·333m)에서 298m를 날려 통기스트상을 차지했다.

니어리스트에는 15번홀(파3·140m)에서 홀컵 13cm 가까이 붙인 정무강(47)회원이 선정됐다.

합평다이너스티CC는 이날 행사를 위해 회원들이 탑승한 모든 카트에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임페리얼 7번홀 원두막에 음료수를 배치해 회원들이 갈증을 달랠수 있도록 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9홀이 끝난 후 클럽하우스 1층 테라스에서 통째지 바베큐및 생맥주 파티를 열

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합평다이너스티CC는 오후 시상식에 앞서 합평다이너스티CC 불우이웃돕기 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 소개와 경기도우미와 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밴드 동아리 '캘리스'가 발표회를 가져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대 클럽챔프 정성훈씨

"훌륭한 회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제4회 회원의 날을 맞아 지난 15~17일 합평다이너스티CC에서 열린 3라운드 경기에서 합계 236타 평균 78타로 제3대 클럽챔피언에 오른 정성훈(46·사업) 회원은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힘들었는데 숯게임이 잘돼 챔피언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력 7년에 헨디 5로 싱글골퍼인 정성훈은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40~250

m를 넘나드는 장타자로 월 4회 정도 합평다이너스티CC를 찾아 실력을 가다듬으며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정 씨는 "제3대 클럽 챔피언으로서 호남 제일의 골프장인 합평다이너스티CC가 전국 명문골프장으로 발돋움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4계절 양산디골프장 합평다이너스티CC는 18일 220명의 회원들과 함께 '제4회 회원의 날' 행사를 갖고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